

슈테델 미술관 정원을 점령한 기괴한 조각들

July 17, 2023 | 김정아 기자

Page 1 of 9

현대 미술가 우고 론디노네의 시간 조각



Ausstellungsansicht, "Ugo Rondinone.Sunrise. East."

Foto: Städel Museum – Norbert Miguletz

올 여름, 프랑크푸르트 슈테델 미술관 정원에 등장한 기괴한 생명체들이 화제다. 곡선 형태의 정원 언덕을 기묘한 풍경으로 탈바꿈 시킨 것은 스위스 출신 작가 우고 론디노네(Ugo Rondinone)의 조각 작품들이다. 작은 눈동자를 가지고 입을 벌린 반짝이는 은색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2미터 높이의 두툽한 두상 조각은 친근한 순진함부터 회의적이거나 놀라거나 전율에 찬 표정까지 다양하다. 이 캐릭터는 가면 혹은 유령, 만화, 이모티콘 또는 밈의 시각적 언어 등의 다양한 연상을 불러일으킨다.



Ausstellungsansicht, *"Ugo Rondinone.Sunrise. East."*

Foto: Städel Museum – Norbert Miguletz

슈테델 정원은 그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모든 대중들에게 열려 있는 론디노네의 예술관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장소가 아닐 수 없다. 슈테델 미술관의 첫 번째 컬렉션 공간이기도 한 이 정원에서 방문객들은 열두 가지 존재와 열두 달의 주기를 직접 만나고 일 년 동안의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해 볼 수 있다.



Ausstellungsansicht, *"Ugo Rondinone.Sunrise. East."*

Foto: Städel Museum – Norbert Miguletz

론디노네는 현재 뉴욕에서 거주하며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현대미술가이다. 그의 작품은 조각 외에도 회화, 비디오,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아우른다. 특히 1990년대부터 제작한 공공미술 작품을 통해 명성을 얻었다. 그의 작업은 음악, 연극, 문학의 영역을 넘나들며 시각예술과 접점을 찾아나간다. 이러한 다양한 매체의 사용은 작가의 기억과 경험, 생각을 전달하는 장치로서 작용한다. '모두를 위한 예술'이라는 의미에서 그는 야외 공간에서 자신의 개성 넘치는 조각 작품으로 폭넓은 관객에게 다가가고자 한다.



Portät Ugo Rondinone Courtesy the artist ©Foto Maru Teppei

론디노네는 시적이고 개념적인 작품을 통해 삶의 모순을 다루고, 인공과 자연, 문화와 사회, 영원과 덧없음 사이의 대화를 만들어낸다. 그의 작업은 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동양에서 서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관련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이고 날것의 기호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마주한 관람객들에게 작품을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단지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우고 론디노네는 축소된 형태와 요소, 문자를 통해 미학적 언어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며 명확한 조형 예술로 승화시킵니다. 작가가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시리즈이기도 한 이번 <SUNRISE. EAST.>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잠시 멈춰 서게 합니다.

- 큐레이터 스벤야 그로서(Svenja Grosser)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자연과 문화의 이중성은 론디노네 작품의 핵심이다. 작가의 회화적 우주에서 일상적인 현상은 실존적이고 철학적 성찰의 가능성으로 변모한다. 론디노네의 작품에 등장하는 수많은 주제느 개인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시간 개념과 같은 개인적인 경험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시간의 순환적 기록이라는 중심적이고 단순한 개념을 12개의 작품으로 구성된 <SUNRISE. EAST.> 시리즈에서 원으로 배열된 각각의 머리에 일 년 중 한 달을 할당하고 각각의 조각에 이름을 붙였다.



Ausstellungsansicht, "Ugo Rondinone.Sunrise. East."

Foto: Städel Museum – Norbert Miguletz



Ausstellungsansicht, "Ugo Rondinone.Sunrise. East."

Foto: Städel Museum – Norbert Miguletz

자연스러움과 인공적인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조형물은 알루미늄으로 주조된 실버 컬러를 띠는데, 아침 이슬을 모방하여 빛에 의한 생동감을 드러낸다. 조각의 겉 표면에는 론디노네의 지문이 새겨져 있어 폴리스티렌코어 위에 점토로 각 머리를 모델링 하는 여러 단계의 제작 과정을 떠올리게 한다. 작품이 위치한 콘크리트 바닥은 풍화된 헛간 나무를 주조한 것으로 나무의 결이 콘크리트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Ausstellungsansicht, "Ugo Rondinone.Sunrise. East."

Foto: Städel Museum – Norbert Miguletz

<SUNRISE. EAST.>는 론디노네의 반복되는 마스크 모티브에서 영감을 받아 폴리네시아 이스터 섬의 기념비적인 모아이 석상 등 토템과의 연관성을 풀어냈다. 슈테델 정원에 있는 작품의 원형은 스톤헨지의 전설적인 석조 단지를 연상시킨다. 신화적인 인상에도 불구하고 론디노네의 알루미늄 두상은 관람객의 내면 세계를 언급하고 감정에 호소하며 조각품을 현재에 위치시키는 캐리커처적인 노트를 가지고 있다.



Ausstellungsansicht, "Ugo Rondinone.Sunrise. East."

Foto: Städel Museum – Norbert Miguletz

자연, 신화, 일상의 순간을 연결하는 론디노네의 많은 아이디어와 접근 방식은 다음 세대의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2000년대 조각이 노골적인 인공성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론디노네는 2003년부터 점토와 청동을 통해 문화와 예술가의 현상을 21세기에 맞춰 해석한 결과 현재의 예술적 위치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독특하고 명상적인 시각 언어가 탄생했다.

론디노네는 서울 아라리오 갤러리와 국제갤러리에서 개최한 몇 번의 개인전을 통해서도 내면과 외면을 은유적이고 시적으로 재현하고 동시에 작가 본인의 상상 속 풍경을 형상화했다. 모든 작품은 론디노네 특유의 연극적 공간 연출을 보여주었고, 전시장 전반을 하나의 풍경으로 연출하게 했다. 특히 <Primordial>(2016)작품은 전시장 천장에 매달려있는 청동으로 만들어진 물고기 조각 52점으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작가의 지문과 함께 캐스팅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작가의 현존을 보여주는 듯하며, 브론즈라는 전통적인 캐스팅 방식은 론디노네가 작업을 통해서 말하는 원시성과 이어진다. 그는 자연 요소들을 상징하는 동물 연작으로 새, 말, 물고기는 각각 공기, 흙, 물을 상징하며, 마치 하나의 동물 우화집을 연상시킨다. 그리고 이들의 계도(系圖)는 공간에 물고기를 연결하고 있는 와이어 선에 의해 강조되는데, 팽창하는 장을 상징하는 듯한 선들은 마치 4차원적 시공간이나 분류학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작업을 시작한 이래 지속적으로 나의 작업을 점유해 온 시간의 구조와 개념은 나의 특정적 감각의 기반이 되어 주었다”

- 우고 론디노네



Ausstellungsansicht, "Ugo Rondinone.Sunrise. East."

Foto: Städel Museum – Norbert Miguletz

론디노네의 작업은 현대 미술사에서 중요한 지점을 차지한다. 작가는 작품이 지닌 개념적 사유와 독창적인 표현 방식을 토대로 조각, 사진, 설치, 회화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의 미디어를 자유롭게 넘나든다. 론디노네는 해학적 유머와 연민, 광대와 무지개를 비롯한 대중문화의 표상들을 능수능란하게 작품에 희석시킴으로써 현실에 대한 비판적 주장을 제기하는 동시에 관념적 유희들을 통해 관람객과의 소통을 시도한다. 이러한 복합적 개념은 다른 현대 작가들로부터 론디노네를 차별화 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는 각각의 작품을 하나의 예술적 담화를 이루는 구성요소로 접근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각각의 전시들은 하나의 시를 구성하는 요소로 해석될 수 있다. 론디노네가 작업에서 언급하는 '원시성'이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 가능한 것이다.

생명의 근원, 궁극적인 것에 대한 물음, 이것이 론디노네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생명력이며 그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작업의 풍경이 되는 것이다. 결국 론디노네의, 자연적 요소가 결합된 작품들은 인간 존재에 대한 물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작업을 설명할 때 말하는 멈춰진 시간성 그리고 명상적인 풍경들의 시적 언어를 통한 은유적 구현 방식은 정서적인 풍경의 구현과 물질을 기반으로 하는 사랑과 신념에 대한 그리고 운명에 대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Information

우고 론디노네의 시간 조각

<UGO RONDINONE. SUNRISE. EAST.>

전시 일자: 2023년 6월 28일 – 11월 5일

전시 장소: 프랑크푸르트 슈테델 정원 STÄDEL GARDEN